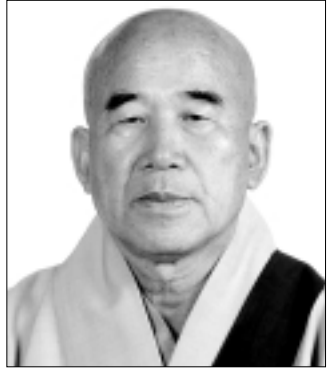


# 영축총림 방장후보 원명 스님 추대

### 통도사 산중총회서... 중앙총회 등의 거쳐 취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에 원명 스님(통도사 비로암 감원·사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원명 스님은 3월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396명 중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추대됐다. 통도사는 2003년 월하 스님 원후 후 차기 방장을 추대하려했으나 후보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이며

내부진통을 겪어왔다. 1952년 사미계, 69년 비구계를 수지한 원명 스님은 통도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경봉장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원명 스님은 3월 26일 개원하는 제173차 임시중앙총회를 거쳐 4월 경 취임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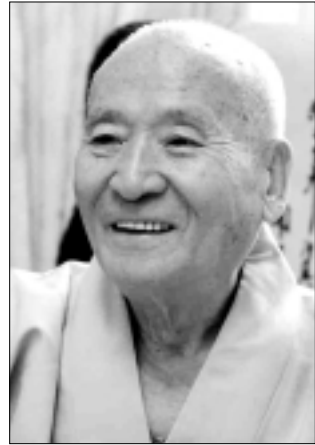
# 선운사 주지후보 법만 스님 선출

고창 선운사 주지 후보에 법만 스님(선운사 참방암 선원장·사진)이 선출됐다. 법만 스님은 3월 5일 선운사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96표 중 54표를 얻어 38표를 획득한 법어 스님을 제치고 차기 주지 후보에 선출됐다. 법만 스님은 1982년 사미계, 8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선운사 재무국장,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 “억겁토록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

###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 입적...평생 염불 원력 '귀감'



설산 스님.



영결다비식이 3월 9일 정토사에서 진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염불 수행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한국정토학회 고문)이 3월 6일 오후 6시경 입적했다. 법랍 75세, 세수 90세. 스님은 “아미타불 부처님 부지런히 정진하였네. 꿈 가운데 구십년 끈구름 인 것을 오늘에야 이 일을 밝게 알았네. 억겁토록 신령스러운 이 지혜 편안한 즐거움 누리리라”라는 입적계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은 3월 9일 오전 10시, 입적자인 정토사에서 병행됐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염불수행자로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설산 스님은 1919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5세 때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계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으며, 건봉사 강원과 동국대 전신인 해화전 문화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를 시작해 10안거를 성만하기도 했다.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계실 때 스님의 수법제자가 돼 화합종단의 조계종 종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또 도선사 신탐학원 원장으로 있으며 경문을 강의하는 등 선승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스님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교학(三藏敎學)은 물론 선지(禪旨)에도 밝으며 항상 석문(禪門)의 도리를 지키고 실천에 앞장서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염불도량인 건봉사에서 출가하고 생활한 탓인지, 염불수행을 하고 싶다는 원력이 항상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건봉사 보고, 염불수행의 맥을 잇겠다는 결심을 한 스님은 서울에 정

토사를 세웠다. 스님은 1974년 5월 건봉사에서 250여 명의 재가 불자들이 함께 만일염불정진을 발원했다.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염불수행을 계속해 왔다. 스님은 평소 “염불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입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집중해야 공덕이 쌓인다”라며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했다. 특히 스님은 2001년 10월 25일 27년 5개월만에 염불도량인 건봉사 창건 이후 여섯 번째로 만일염불수행을 회향했다. 만일염불수행을 마친 스님은 “1만일이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에 불과하다. 죽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로써 염불을 하겠다”며 도선사, 능인선원, 염불선원, 정토사 신도 및 전국만일염불회 회원 900여명과 만일염불수행을 입재하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 템플스테이 정책·자문기구 설치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선센터 건립 등 사업계획 밝혀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문기구가 설치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의 안정성 및 장기적 전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자살 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사업단이 밝힌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자문위원회’는 운영자살, 관광관련 학자, 관광분야 전문가 등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분기별 1회 열리는 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자문과 협조 방안을 모색한다. ‘템플스테이 정책협의회’는 운영자살, 사업단, 문화관광부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템플스테이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을 한다. 문화컨텐츠 사업 중장기 로드맵 및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문화 컨텐츠 정책위원회’도 마련한다. 정책위원회는 사업단, 총무원 문화부, 지적재산권 및 문화산업 관련자들로 구성되며 연 2회 연찬회를 연다. 사업단은 또 각 사찰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개의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교부예정인 국고 지원금 15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도 나왔다. 150억원 중 시설지원비 130억원은 국제선센터 건립에 60억원, 템플스테이 센터 마련에 40억원, 전용시설 신축에 20억원, 전용시설 개보수에 5억원, 문화상품 전시 및 판매시설에 5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경상비 20억원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접 사업비 및 경상비 18억원과 당해 사찰 경상비 지원 2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주지 및 관련 스님들의 모임인 ‘템플

스테이 운영자살협의회’가 창립됐다. 템플스테이 운영자살협의회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에 적은 스님(경주 팔공사), 부회장에 주경(서산 부석사) 금강(해남 미황사) 성전(남해 용문사) 월도(춘천 삼운사) 법원(논산 지장정사) 보인(양평 용문사) 적조(서울 길상사) 스님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3월 26일 개원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총회가 3월 26일 오전 10시 개원해 30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결산총회에서는 재심회계위원 선출의 건, 지능대표선출위원 선출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법 개정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총회는 26일 개원 후 중앙종무기관 결산 검사 등을 한 뒤 28일 오후 2시 속개회로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 도의국사 수법·구법기념비 선다

### 조계종 추진위, 中 강서성 우민사·보화선사에

중국 강서성 남창시 우민사구 홀주 개원사에 ‘도의 국사 수법기념비’가 설립된다. 또 강서성 감주 공산 보화선사구(서산당)에는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가 세워진다. 조계종 조계종 도의국사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수법기념비를 세운 뒤 곧이어 구법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수법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은 <조당집> 중 ‘공부의 보단사에 가서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고...다음에 강서 홀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지장에 게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고, 의심을 풀고, 막힌 체증을 푸니, 서당 대사는 마치 돌 틈에서 옥을 고른 듯하고 조계갑질에서 진주를 주워

낸 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그리고 이름을 도의로 고쳐주었다”라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지관(총무원장) 지승(중앙총회의장) 법등(회계위원장) 정화(교육위원장) 혜종(포교위원장) 현문(총무부장) 탁연(문화부장) 지원(사회부장) 향직(불교신문사장 대행) 정후(중앙총회의원) 보선(중앙총회의원) 성지(중앙총회의원) 장직(중앙총회의원) 지준(중앙총회의원) 윤달(중앙총회의원) 지원(중화사 기획선원장) 영진(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스님과 자문위원인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조영록(동국대 명예교수) 이은운(금강불교 편집인)씨로 구성됐다. 남동우 기자

# 개항기에서 8·15까지 불교역사 조명

### 조계종 ‘불교근대화...’ 발간

개항기부터 8·15 해방까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교사연구위원회의 첫 번째 연구 보고서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에는 개항기 사찰, 불교교단의 변천, 사찰령과 사법, 불교혁명론, 중앙불전, 수좌대회, 조계종의 종조·법통 인식, 근대불

교학, 불교의 타종교 인식 등 근대불교사의 중요한 테마들을 담고 있다. 한편 불교사연구위원회는 올해 ‘한국 현대불교와 조계종’이라는 큰 주제 아래 △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 △정화주의의 정화사상(성철·청담) △비구승·대처승의 화합 △불교정화와 종조 문제 △조계종의 성립과 승가의 이념 △승지개혁과 사찰조직 변동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한국불교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이신 임제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포를 수지 선양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나옹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중현, 종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창종 법요식

-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 장소 : 총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